

# '노벨상급 해외석학' 10명 2억 연봉 전남대 교수로

'노벨상급 해외석학' 10명이 1일부터 전남대 교수로 재직하며 강의와 연구를 진행한다. 이들은 2억원 안팎의 연봉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대는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orld Class University : WCU) 사업에 전국 최다인 총 6개 연구과제가 선정됨에 따라 해외석학 10명을 유치했다고 지난 달 31일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5년 동안 전남대에 머물며 에너지·환경, 생명과학, 화학재료, 기계, 인문사회 분야 등에서 연구과제 수행과 강의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식품의 세포신호 전달'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 쑹루엔(Sheng Luan) 미국 버클리 교수를 포함해 미국 켈리포니아 주립대의 존칼슨(John E. Carlson) 교수, 미시간 공업대학의 산드라제카 조쉬(CP Joshi) 교수, 그리고 미시간 주립대학의 환경안 교수 등 4명은 내년 3월 전국 최초로 전남대에 신설되는 '바이오에너지 공학과'에서 공동 강의와 연구도 맡게 된다.

이와 함께 미국 국립보건원 소속의 헤닝하우젠(Lothar Hennighausen) 교수는 20년 전 형질전환 동물생명공학 분야의 선구자적인 연구업적을 발표했으며, 독일 쾰른대학 베르트하이네(Bernd Heine) 교수는 언어 문법화(문법의 형성) 연구의 권위자로 잘 알려져 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브라이언가드너(Brian B. Mcspadden Gardner) 교수는 토양 유용 미생물의 생태적 기능, 군집 동태, 다양성 분석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중국 에너지 소재 연구·개발의 반세기기를 이끌어온 리꾸안첸(Li-quan Chen) 교수를 비롯해 중국 나노기술 분야에서 가장 활발히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이신신(Xin Xin Li) 교수, 중국과학원 전체에서 '탑50 어워드'를 수상해 전국 최우수 학위 논문자로 꼽히는 유구오(Yu-Guo Guo) 교수 등도 전남대에서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아시아인권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지난달 31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층에서 열린 '2009 광주 아시아인권학' 입학식에서 아시아 인권운동 활동가 20명이 결의를 다지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 낮 시간에 전조등 켜면 교통사고 확~ 줄어요



### 10 전조등 켜기

"주간에 전조등을 켜면 사고가 확 줄어요."

지난 6월 출범한 '광주 선진교통문화 범시민운동본부'는 5대 행동강령 중 첫 번째로 '낮 시간 전조등 켜기'를 꼽았다. 광주가 '교통사고 1위 도시'의 오명을 벗기 위해선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주간 전조등 켜기가 정착돼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주간에 전조등을 켜는 것은 캐나다를 비롯한 교통 선진국을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시행돼왔다. 주간 점등은 지난 1960년대 초 미국 텍사스에서 처음 실시됐으며, 북유럽의 여러 국가로 확대됐다. 현재는 캐나다를 비롯,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덴마크, 폴란드, 헝가리 등이 주간 점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가운데 캐나다와 스웨덴 등은 주간 점등을 의무화한 뒤 연평균 8.3% 이상의 교통사고 감소효과를 보고 있다. 또 핀란드에서는 주간 점등 이후 정면충돌사고가 28%나 줄었다.

국내에서는 주간 점등이 연료소

모와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논란을 거듭하다 최근야 중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운전자들 사이에서 주간에 전조등을 켜는 것 만으로도 사고 감소 효과가 크다는 의식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또 기술 발달로 차량 연료 및 오염 문제가 크게 개선된 점도 주간 점등제 도입의 필요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교통 선진국 오래 전 시행  
연 8.3% 이상 사고 감소  
강원도에선 80%나 줄어**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주간에 전조등을 켜는 경우 교통사고가 연간 8.3% 줄어들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조3천억원 이상을 줄일 수 있다. 공단이 지난 2002년 전국버스공제조합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간에 점등을 할 경우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4.4%, 사망자 수는 23%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해 한국도로공사에서 88고속도로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에서는 교통사고 건수가 40% 이상 줄어들기도 했다.

**광주선진교통문화 범시민운동본부·광주일보 공동 캠페인**

택시의 경우 강원도 원주의 한 회사가 지난 2003년 6개월여에 걸쳐 주간 점등을 한 결과 1년 전에 비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80%나 줄었다. 주간 점등의 효과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셈이다.

또 일부 운전자들이 연료 소비량 증가, 전구와 배터리 수명 단축 등 부정적 의견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교통사고 인한 피해 등을 감안하면 경제적인 이익도 훨씬 크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한국도로공사 호남 본부는 주간전조등 점등 문화 확산을 위해 광주·전남의 택시업계를 중심으로 '주간 자동점등시스템' 보급에 나섰다. 호남본부는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목포지역 9개 택시회사 차량 622대에 자동점등 체계 부품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광주·전남지역 택시 2천여대를 대상으로 관련 기술을 보급할 예정이다.

김양균 광주 선진교통문화 범시민운동본부 대표회장은 "낮에 전조등을 켜면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우리나라에도 주간 점등 문화가 정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05분 해질 19시 00분 달돋이 17시 06분 달짐 02시 36분

**가을바람 솔~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었으며 곳에 따라 비가 오는 지역도 있겠다.

도시	날씨	기온
광주	맑은 뒤 흐림	18/29℃
목포	맑은 뒤 흐림	19/28℃
여수	구름 많음	20/25℃
완도	구름 많음	20/27℃
구례	맑은 뒤 흐림	17/29℃
해남	구름 많음	20/28℃
장흥	구름 많음	19/28℃
고흥	비온 뒤 맑	20/27℃
순천	구름 많음	19/29℃
영광	맑은 뒤 흐림	16/28℃
진도	구름 많음	20/27℃
전주	구름 조금	16/29℃
남원	구름 조금	16/29℃
목성도	맑은 뒤 흐림	20/26℃

지역별 강수량: 서해 남부 앞바다 1.0~1.5m, 남해 서부 앞바다 1.0~2.5m, 남해 서부 앞바다 2.0~4.0m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수)	3(목)	4(금)	5(토)	6(일)	7(월)
날씨	☀	☁	☁	☀	☀	☁
최저/최고	18/30	19/30	20/30	20/30	21/31	20/30



**3일 백중사리**  
서해안 연중 최고 수위

이달 초 백중사리 전후와 증하순개 서해안의 바닷물 수위가 연중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역별로는 목포는 4~6일, 목포~군산 17~22일, 여수~부산 17~21일 바닷물의 수위가 가장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과 해양경찰청, 국립수산물

**'김기삼 간첩 조작 사건' 28년 만에 재심 결정**

수사기관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알려진 '김기삼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 법원이 28년 만에 재심 결정을 내렸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장병우)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김기삼(80)씨가 낸 재심 청구에 대해 재심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씨가 영장이 발행된 뒤 장시간 불법감금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은 점이 인정된"고 밝혔다.

김씨는 한국전력 검침원으로 일하던 지난 1980년 12월 8일 옛 국가안전기획부 광주본실 수사관 2명에 의해 연행된 뒤 52일간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간첩활동에 대해 허위 자백함으로써 지난 1981년 6월 광주지법에서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광주시교육청 '빛 제로 시대'

1,361억원 갚아 '無 부채 기관' 달성

**교육 여건 획기적 개선**

광주시교육청이 개청 이후 처음으로 '빛 제로(0) 시대'를 열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최근 156억원의 부채를 갚아 한 푼의 빚도 없는 무(無) 부채 기관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이 본격적으로 부채 청산에 나선 것은 2007년부터다. 전체 예산의 10%가 훨씬 넘는 1천억원 이상의 부채는 매년 원금과 이자 상환으로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됐기 때문이다.

시 교육청은 이에 '튼튼 교육재정 회담 프로젝트 2010 계획'을 세워 부채 줄이기에 나섰다. 우선 안순일 교육감과 간부들은 정부 부채를 찾아다니고 국회의원을 상대로 재원 확보에

안간힘을 쏟았다. 결국 2006년 45억원 상환을 시작으로 2007년 330억원, 지난해는 무려 830억원을 갚았다. 2007년부터 100억원 미만의 신규 지방채 발행이 있었으나 이를 상쇄하고도 남았다.

예산도 2007년 1조300억원으로 첫 1조원을 넘어서고 지난해는 1조3천억원, 올해는 1조4천억원을 달성했다. 빚이 없다 보니 숙원사업인 냉난방 시설 확충, 노후 급식기구, 책걸상 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에도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과밀화급해소를 위해 20여개 학교가 신설되거나 이설, 재배치 되는 등 교육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시 교육청이 지난 3년간 일선 교육현장에 투입한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규모는 6천300억원에 이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우리고장! 우리치킨**  
**다정다정피자**

신개장 매장

다정다정피자

11월 11일 11시 11분 11초